

# 코로나 확산에 전남 전통시장·관광지 자발적 휴장

## '순천 아랫장' 27일 문닫아

###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도

###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연기

코로나19 감염이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이어 목포·나주·영광·화순·담양 등 중·서부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인들과 지자체는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을 자발적으로 휴장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규모의 전통시장인 '순천 아랫장'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예정된 5일장을 자발적으로 휴장한다.

순천시와 아랫장변영회와 노점협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순천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휴장을 결정하고 점포 상인뿐만 아니라 노점상까지 휴장에 동참하기로 했다.

천제두 순천 아랫장 변영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전통시장 상인들도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자발적 휴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순천 아랫장변영회는 자체적으로 아랫장 내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순천시와 함께 장날마다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전통시장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광양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임시 휴장한다. 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이 임시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과 목재 문화체험장 등 실내 프로그램 운영이 중지된다.

생태숲 탐방 등 실외 프로그램은 이용 인원을 제한해 부분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기존 예약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해 이용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연기했다.

나주시의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행정

사무 감사를 진행해왔으나 남은 일정을 12월 1~2일로 조정했다.

나주시의회는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동선이 겹치는 일부 의원과 공무원의 감염 우려가 커 선제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사무감사는 34개 실과소 가운데 15개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19개과가 남아있다.

나주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다음달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신화관 준공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지난 8월 21일 신화관을 준공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최 시기를 계속 미뤘다. 준공식 날짜를 정해 준비해왔는데 최근 여수·순천·광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아쉽지만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은중·김대수·김민수·김창화 기자 ejkim@



순천 아랫장 주변 도로에 '27일 임시 휴장'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순천시 제공〉

## 여수시, 관광 웹드라마 '호접몽' 이어 '윤슬' 촬영

### 여자만 갯노을길·섬 영상에 담아 고대 삼국~현대 1500년 이야기

서울웹페스트에서 웹드라마 '호접몽'으로 베스트 드라마상을 수상한 여수시가 새 웹드라마 촬영을 시작했다.

여수시는 지난 18일부터 여수의 섬과 여자만 갯노을길 등지를 돌면서 여섯번째 여수 관광 웹드라마 '윤슬'을 제작하고 있다.

'윤슬'의 사전적 의미는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어반짝이는 잔물결'이다. 고대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500년의 시공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남자주인공은 백제로 망명한 신라 진골 출신 해오랑, 여자주인공은 백제 귀족 가문의 영애 별녀다. 이들을 질투하는 백제 무장 관우 등 3명의 주



여수시가 여섯번째 여수관광 웹드라마 '윤슬'의 촬영을 시작했다.

〈여수시 제공〉

인공이 환생을 거듭하며 삼각관계로 얽히고설키는 퓨전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관광 트렌드를 선

도하는 도시답게 이번 웹드라마 주요 촬영지를 금오도 비렁길, 여수섬점길과 같은 비대면 여행지로 선정했다.

특히 돌산읍 큰끝등대의 해상 전경을 소개하며 화제를 모은 '호접몽'처럼 이 작품도 가사리 갈대밭, 장척과 아천마을에 새로 조성된 포토존 등 여자만 갯노을길의 아름다운 일몰 전경을 담아 국내 외에 알릴 예정이다.

흥국사, 은적사, 선소유적 등 여수의 유서 깊은 명승도 촬영지로 선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이 여수의 아름다움을 담은 웹드라마를 통해 랜선여행하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가 올해 발표한 여수 관광 웹드라마 '호접몽'은 다음달 개최되는 '제4회 2020 아시아 웹어워즈' 후보작으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호평을 받은 102편의 웹영화들과 경쟁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구례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 경연대회 대상



구례군은 '2020년 목재문화체험장 우수사례 및 체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운영 우수사례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례군은 찾아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 '목(木)요일은 나무와 놀이 하는 날' 등을 운영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로 침체된 체험장의 활성화 운영 방안 모색으로 '찾아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해 구례지역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과 전북 남원시 등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활동 지원과 진로·직업 목공 체험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SNS와 블로그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은 지리산정원관 휴양림, 수목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지리산역사문화관 등 구례군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군민들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선박 안전항로 확보"...해수부, 광양항 암초 제거

### 인근 지역 바다숲 조성에 활용

해양수산부는 27일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에 착수한다.

광양항 해역은 여천, 광양, 율촌, 하동지역의 유일한 진입항로, 10만t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나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화물 운반선이 자주 통항하는 해역이다.

하지만 해역 우측에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

출암'(썰물 때는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는 바위)이 있어 지난 1988년부터 교통안전특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5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간출암이 해양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제거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해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 사업은 항로상에 있는 암초를 제거해 22.5m의 항로 수심을 확보하고, 항로폭을 확장(420m→600m)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4년 2월까지 9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저소음·저진동의 최신 'OD발파공법'(천공 후 발파)과 4중 공기 장막으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에어월'(Air Wall) 등 첨단공법을 도입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8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제거된 암초는 인근 마을 어장에 공급해 바다숲 등 어장기반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암초 제거 공사를 진행한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